

마이크로 스피커 ISO 인증 획득

기린전자

기린전자(대표 이기방)가 지난 1월 23일 한국품질보증원으로부터 ISO9002 인증을 획득했다.

이 회사는 고품질 생산체제 및 품질보증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난 94년 5월부터 인증획득을 추진, 구랍 12일부터 29일까지 영국 BSI와 한국품질보증원의 심사를 거쳐 23일 최종적으로 인증을 획득하였다.

기린전자는 이번 인증획득을 계기로 내부 품질보증시스템을 확립하여 세계 최고의 마이크로 스피커 전문업체로 성장할 계획이다.

오는 4월 18일 창립 11주년을 맞는 기린전자는 유·무선 전화기 등 통신기기용 마이크로 스피커 및 리시버 유닛을 전문생산하는 업체로 수출에 주력, 지난 94년에는 5백만불 수출탑을 수상하기도 했으며 지난해에는 한일산업 기술협력재단으로부터 「프로젝트 타입 육성업체」로 선정된 바 있다.

인터넷 SW사업

본격화

다우기술

다우기술(대표김익래)이 국내 처음으로 미국 넷스케이프커뮤

니케이션스사 제품군을 통해 클라이언트서버(CS)용 인터넷 소프트웨어(SW)사업에 본격 나섰다.

다우기술은 올해부터 넷스케이프가 보유하고 있는 5종의 서버, 3종의 클라이언트(브라우저)저작 도구를 비롯 각종 응용SW제품을 RTC(Right To Copy)방식으로 기업들에 제공키로 하는 등 본격적인 인터넷 SW사업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국내 사용자들이 인터넷 접속초기에 넷스케이프사 영문홈페이지(웹)로 자동 연결되던 것을 최근 구축한 이 회사 한글 홈페이지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내사용자 지원과 함께 인터넷상의 각종 웹사이트 정보 등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다우기술은 특히 홈페이지에 「What's New」와 같은 메뉴를 두고 사용자들에게 기존 웹사이트 및 새로 구축되는 국내의 각종 웹

사이트 목록 정보를 제공, 인터넷 접속 활성화를 꾀하기로 했다.

다우기술은 제품공급과 관련해 을초 포항제철·한국전자통신 등에 RTC방식의 대규모 제품공급 계약을 이미 체결했으며 대규모 고객들을 위한 OEM판매방식도 도입할 계획이다.

입체냉장고 탱크 II

발표

대우전자

대우전자(대표 배순훈)가 냉각 성능과 사용편리성을 개선한 96년형 「입체냉장고 탱크 II」를 발표했다.

대우전자는 이 제품의 핵심기술은 「터보 입체냉각방식」으로 에어로 초평시스템(Aero Chopping System)을 채용해 30분마다 냉기를 공급해주던 기존 냉장





각 방식과 달리 5분 단위로 강력하게 분사하며 시간경과에 따른 온도편차를 0.3도 이하로 줄여 냉장실의 온도를 2도의 정온상태로 유지, 보관식품의 신선도를 대폭 향상시켰다고 밝혔다.

대우전자는 기본 성능강화와 함께 그동안 사용 및 청소애 많은 불편을 주었던 물디스펜서에 직수식 전용냉기로를 채용해 물고임이 없도록 하고 4도 이하가 되면 색깔이 변하는 온도감지스티커를 부착, 소비자들이 냉각수의 온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절전기능 및 사용 편리성과 관련, 냉장실 문을 닫을 때 냉동실 문이 열려 전기 소모가 많았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냉동실 도어 열림방지기능」을 채용했고 최대 20kg의 무게를 견딜 수 있도록 알루미늄 봉을 삽입한 고강도 선반을 장착했다.

태국에 CFC 대체 냉장고 공장 건설

대우전자

대우전자(대표 배순훈)가 염화불화탄소(CFC)를 사용하지 않는 냉장고 공장을 태국에 세운다.

대우전자는 지난 1월 23일 태국 다이스타(DISTAR)사와 30대 70의 비율로 총 1,500만 달러를 투자, 라용산업공단안에 연산 10만대 규모의 CFC대체냉매 전용 냉장고 합작생산법인 「DETAI」를 설립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지에서 대우전자 아시아 지역담당 김상도이사와 다이스타사의 비빔 사장간에 체결된 계약내용에 따르면 이 공장은 3월 착공에 들어가 내년 1월 본격 가동을 시작하며 1차로 140ℓ와 170ℓ 급 2개 모델을 생산할 예정이다.

생산공장 건설 및 사업추진과 관련해 대우전자는 생산설비·기술지도와 교육 등을 맡고 다이스타는 토지와 건물을 제공하며 향후 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냉장고의 판매를 전담하기로 했다.

또한 양사는 이 합작공장에서 생산되는 냉장고를 대우브렌드로 태국 내수시장에 공급키로 했으며 공장가동이 본격도에 오르게 될 오는 98년부터는 냉장고 생산규모를 늘리고 세탁기 등으로 생산품목을 적극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문서관리 전산화 확대 시행

대우전자

대우전자(대표 배순훈)는 사무혁신 활동의 일환으로 문서관리 전산화 시스템인 「캐비닛」을 도입, 시행키로 했다.

대우전자는 1월 26일부터 마포 본사를 비롯한 각 공장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각종 업무연락이나 부서간 협조전, 인사발령 사항 등의 서류를 포함한 모든 문서를 PC로 작성, 전산을 통해 주고받을 수 있는 전산화 시스템을 확대 가동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행랑수발을 이용할 때 1~2일 걸리던 업무연락 기간이 크게 단축됐다.

이 캐비닛 시스템은 문서송신부서에서 컴퓨터로 작성한 문서파일을 주컴퓨터로 보내면 이를 수신부서로 송신하는 전산지원시스템으로 온라인으로 실행되며 이에 따라 원거리 사업장에서 PC로 작성한 다양한 종류의 파일도 쉽게 전달할 수 있다.

'96 영업방침 설명회 개최

대우전자

대우전자(대표 배순훈)는 1월

16일부터 23일까지 1주일간 「전국순회 '96년 국내영업방침 설명회」를 개최했다.

전국을 서울, 중부, 서부, 경북, 경남 등 5대 권역별로 나누어 실시된 이번 영업방침 설명회는 16일 광주(서부지역)을 시작으로 17일 대구(경북지역), 18일 서울, 19일 부산(경남지역) 및 23일 이천(중부지역)에서 차례로 개최됐는데, 양재열사장을 비롯해 국내영업부문 관련 임직원 및 전국 유통점 사장 등 1,500여명이 참석했다.

대우전자는 이 행사기간 동안 유통점 사장들을 대상으로 올해 출시되는 신제품에 대한 품목별 소재와 제품운영전략, 국내영업 운영방향 및 내수판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 등을 설명하고, 사장을 비롯한 국내영업 임원 및 유통점 간의 토론시간도 가졌다.

또 10년 이상 장기근속자 16명 및 월평균 1억 이상의 매출실적을 올린 우수점 19명 등 총 35명의 대리점 사장들에 대해 각각 장기근속상과 우수상을 시상할 계획이다.

대우전자는 지난해 개벽 TV, 입체냉장고 탱크, 공기방울세탁기와 다이아몬드 VCR 등 주력제품이 전반적으로 호조를 보이는데 힘입어 내수판매 1조 1천억원을 기록했으며, 올해는 이보다 27%가 늘어난 1조 4천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디자인 산학 협동 「'96 ID 캠프」개최 대우전자

제품 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자인의 중요성에 대하여 소비자들의 인지도가 점차 커지고 있는데 대우전자(대표 배순훈)는 기업과 학계 간의 산학협동을 통한 국내 디자인계의 질적 향상을 위해 「'96 ID 캠프(Industrial Design Camp)」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전국 40여개의 대학에서 선발된 총 66명의 산업디자인 전공 학생들이 참여, 1월 17일부터 1주일간의 일정으로 경남 부곡에서 진행됐는데, 각기 다른 출신학교의 학생들이 12개의 팀을 구성하여 워크샵(Workshop)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기업 내의 디자이너들과 산업디자인학과 교수의 강연 및 세미나 등이 있었다.

이 행사를 주최한 대우전자는 기능 및 합리성을 중시하던 지금까지의 디자인 조류에서 탈피하고 점차 개성화, 다양화 되어가는 새로운 디자인 조류의 방향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올해의 주제를 '1999'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과 사내 디자이너들의 작품들 중 가전제품에 관한 우수디자인을 선정하여 행사 이후에 전국 순회 전시회를 벌이는 한편 제품 개발에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90년부터 매년 실시되어 온 「대우전자 ID 캠프」는 기업은 학생들에게 전문디자이너를 통해 시장 경쟁력이 있는 제품 디자인에 관한 현실감 있는 지도를 제공하고 학생은 기업에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등, 기업과 학계 간의 바람직한 산학협동을 통해 상호 많은 도움이 되어왔을 뿐 아니라, 이 행사를 통해 서로 다른 학교에서 모인 학생들의 유대관계가 긴밀해짐으로써 학교간 디자인 교류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해 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대우전자는 현재 가전시장의 제품 경쟁에서 디자인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커짐에 따라 해외현지 디자인연구소 설립을 확대하고 해외법인내에 전문디자이너를 파견하여 현지 시장경쟁력을 키우는 한편, 산업디자인 부문 산학협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디자인 부문에 대한 투자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사내대학」 운영

대우전자

대우전자(대표 배순훈)는 급속한 경영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장기적인 차원에서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해 3개월 및 6개월 과정의 「사내대학」을 운영한다.

대우전자 사내대학은 국내근무 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해외직무대학'으로 나누어 운영되는데, '국내직무대학'의 경우 3개월을 기본과정으로 전산, 정보기술, 영업, 마케팅, 구매, 자재, 품질 관련 교육 등을 실시하며, '해외직무대학'은 6개월을 기본과정으로 어학교육, 경리, 회계, 마케팅, 무역실무 등을 교육하게 된다.

대우전자는 1차로 부장부터 대리까지 총 40명의 직원들을 국내 직무대학 과정에 선발, 29일부터 4월말까지 3개월간 각 분야별로 한국능률협회 등 전문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을 받게 되는 제1기 사내대학을 운영할 예정이며, 이어서 해외근무예정자들을 대상으로 2기 사내대학을 운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사내대학 운영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대우전자는 최근 해외공장과 판매법인이 대폭 늘어나면서 해외근무인력 수요가 급증하는 등 회사를 움직여나갈 중추인력들을 폭넓게 육성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사내대학을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가정용 냉동고 시장

진출

대우전자

대우전자(대표 배순훈)가 가정

용 냉동고사업에 진출해 기존업체들과 치열한 시장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부터 냉동고사업을 준비해온 대우전자는 최근 개발을 완료한 30만원대 신제품(모델명 FFA 0940)을 2월중 내놓고 가정용 냉동고사업에 본격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89년 LG전자가 처음 가정용 냉동고시장에 참여한 이후 지난해 하반기三星전자가 180ℓ급 가정용 냉동고를 출시한 데 이어 올들어 대우전자까지 이 시장에 가세함으로써 향후 이들 가전 3사와 리페르·밀레 등 독일산 유명제품을 판매하는 등 수입업체간의 시장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대우전자가 이번에 개발한 가정용 냉동고는 85ℓ에 냉각팬을 채용한 간접냉각식으로 기존의 직접냉각식 제품에 성에가 발생하는 단점을 개선한점이 특징이다.

또한 좌우로 열 수 있는 가변door와 서랍식 수납장을 채용, 편리성을 향상시켰다.

복합용 청소기 「멀티」

출시

대우전자

대우전자(대표 배순훈)가 기존의 원통형과 수직형 청소기를 결합한 복합형 청소기 「멀티(모델

명 RC-415)」를 개발했다.

2월부터 시판에 나설 이 청소기는 장애물이 없는 거실이나 안방에서는 곧바로 청소할 수 있는 「즉각청소기능」을 채용했고 가구, 가전제품 등이 놓인 좁은 공간에서는 본체와 핸들부위를 분리사용할 수 있도록 해 편리성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또 410W(소음도 60dB)의 흡입력을 낼 수 있는 강력모터와 초슬림형 브러시로 가구 밑부분 등 청소사각지대를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도록 했고 브러시에 부착된 특수 섬유질의 마른걸레는 정전기로 붙어있는 머리카락까지 흡입할 수 있다.

대우전자는 기존 청소기의 먼지 봉투가 터져 집진실이 오염되고 모터내부에 먼지가 쌓여 흡입력이 떨어지는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 폴리프로필렌 소재를 사용한 먼지 봉투를 채용했다.

이 청소기는 실용성뿐만 아니라 인테리어 감각을 살린 디자인으로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으로부터 굿디자인(GD)마크를 획득한 바 있다.

저가 고성능 복사기

개발

대우통신

대우통신(대표 류기범)은 분당47장 복사, 최대 3,550장의 대량급

지가 가능한 저가 고성능 복사기 (모델명 DCP 7060)를 자체 개발하고 이달말부터 시판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 제품은 NMT(New Micro Toning)현상방식과 토너의 농도를 균일하게 해주는 MTL(Micro Toning Line Supply)방식 등을 채택 했으며 정착롤러와 클리닝 기구의 오염방지 기능을 대폭개선, 인쇄화질을 향상시킨 것이 특징이다.

중국서 소형 TV생산 동국종합전자

동국종합전자(대표 문승호)가 2월부터 중국 청도공장에서 소형 TV를 본격적으로 생산한다.

동국종합전자는 지난 연말 중국 청도공장에 계측기를 설치한 데 이어 이달말까지 월 2만대 규모의 소형 TV 생산라인을 구축해 시험생산을 거쳐 다음달부터 제품생산에 들어간다고 1월 15일 밝혔다.

동국전자는 우선 다음달에는 2천대에 소형 TV를 생산하고 오는 3월에는 3천대, 그리고 5월에는 5천대를 생산하는 등 생산량을 차츰 늘려 나갈 계획이다.

해외 마케팅 강화 삼성전기

삼성전기(대표 이형도)는 해외지점 확대, 기존지점의 판매법인 전환 등 올해 해외 생산비중이 30%까지 높아지는 데 따른 현지 마

케팅 능력을 대폭 강화한다.

삼성전기는 그간 해외 공장 가동이 정착 단계에 접어들어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지역별 지점증설과 현지 자금조달 및 판매망 확보를 담당할 판매법인 전환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아프리카를 제외한 권역별 마케팅 체계를 구축해 나간다.

이 회사는 기존 11개의 해외지점 외에는 최근 브라질 상파울루 지점 개소식을 가졌고 연내에 중국 심천, 태국, 터키 등지에 추가로 지점을 확보할 계획이며 미국 새너제이, 독일 프랑크푸르트, 싱가포르 지점을 각각 판매법인으로 승격, 미주·유럽·동남아 지역의 마케팅을 수행토록 했다.

세계 최초 2세대 64M DRAM 양산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64메가D램 2세대 제품을 본격 양산, 이 제품의 상용화에 나섰다고 발표했다. 64메가 D램 2세대 제품을 양산하는 것은 이번이 세계에서 처음이다.

2세대 반도체는 개발초기의 1세대 제품보다 크기가 5분의 1정도 작아 웨이퍼당 생산성이 40% 이상 높다. 이에 따라 1세대는 개발용, 2세대는 상용 제품으로 통한다. 삼성은 지난해 말 주력 생산을 4메가D램에서 16메가 D램으로 전환함에 따라 그 다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64메가D램 양산체제를 가동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삼성이 양산할 제품은 칩의 크기가 가로 841mil(1mil은 1천분의 1인치), 세로 4백mil로 1세대 제품보다 사이즈가 20% 작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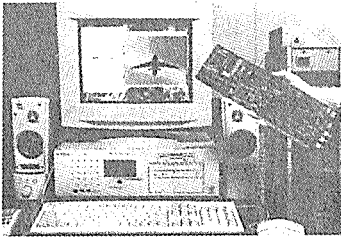
회로선폭은 0.32 μ m(1 μ m은 1백만분의 1m)로 3.3V의 저전압에서 작동할 수 있다. 또 50나노초(1나노초는 10억분의 1초)의 고속 정보처리 기능을 갖고 있다.

반도체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미데이터 퀘스트에 따르면 64메가 D램 시장은 올해부터 연 4백만개 규모로 형성되기 시작, 오는 99년 5억 9,600만개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현재 세계시장에서는 개당 309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다.

세트톱 박스 내장 새 PC 개발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대화형 TV를 시청할 수 있는 세트톱 박스를 내장한 PC를 개발, VDT(주문형비디오) 등 고품위의 멀티미디어서비스를 PC에서도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고 1월 25일 발표했다.

삼성전자는 PC의 고유기능을 유지하면서 양방향 대화형 TV를 볼 수 있는 세트톱 박스를 PC보드 위에서 「원보드」형태로 구현해 냈다. 세트톱 박스는 디지털 압축영상신호를 TV수상기에 알맞는 신호로 복원해 주는 모뎀과 유사한 증계장치이다.



이 제품은 윈도95 윈도 3.1을 기본 운영체제로 S/9운영체제가 동시에 작동하는 2중모드로 설계됐다. 특히 1.544Mbps급 속도의 MPEG1의 화질을 오디오 비디오 그래픽 압축데이터로 PC에서 받아 볼 수있고 사용자가 선택한 메뉴를 비디오 서버에 전송하는 쌍방향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자체에 MPEG칩이 내장돼 별도의 카드없이 비디오CD를 볼 수 있으며 오버레이기능을 통해 중요 화면의 캡처 확대 축소 편집이 가능하다.

더블 스크린 TV 개발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최근 화질과 음질을 크게 개선하고 더블스크린 기능을 채용한 96년형 명품 더블TV(모델명 CT 2988D)를 개발, 판매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제품은 고선명TV(HDTV)용 「캐소드(cathode)」를 채용, 초기화질이 유지되는 기간이 5만 시간에 달해 화질 수명을 크게 늘

린 게 가장 큰 특징이다.

이 제품은 또 대용량 돔형구조에 트위터·미들레인저·우퍼 등 3웨이방식으로 설계된 모두 6개의 스피커시스템을 채용함으로써 기존 명품 TV보다 음질이 크게 개선됐다.

이 제품은 두 채널을 동시에 시청할 수 있는 더블스크린 기능을 갖춰 다채널시대에 대응했고 편평도가 2.5R인 평면 브라운관과 위성방송안테나의 수신감도 증폭기술을 채용, 난시청 지역에서도 좋은 화질을 유지할 수 있다.

펜티엄급 주기판

남아공에 첫 수출

석정전자

주기판 전문생산업체인 석정전자(대표 박재수)가 국내 처음으로 남아프리카공화국에 펜티엄급 주기판 및 PC반제품을 수출한다.

석정전자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와 남아공 정부의 행망용 PC에 탑재될 펜티엄급 주기판 및 PC반제품을 올연말까지 24,000대 공급기로 하는 수출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석정전자는 이번 수출계약을 계기로 이달중 2천대 상상의 펜티엄급 주기판 및 64비트 VGA카드·메모리·HDD·6배속 CD롬 드라이브를 남아공에 첫 선적하는 등 매달 2천대씩 공급할 계획이다.

석정전자는 이번에 남아공 정부의 행망용 PC공급권을 획득함에 따라 내년 이후 계속사업으로 전개되는 남아공 정부의 행망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 국내 PC수출의 새로운 지평을 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가입자 전송장비 개발

성미전자

성미전자(대표 유태노)는 155Mbps급 동기식 광가입자 전송장비(FLC)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성미전자가 개발한 광가입자 전송장비(모델명 FLC-600/2000)는 초고속정보통신망사업에 있어 핵심장비중의 하나로 교환기·국간 전송장비와 가입자간에 다양한 신호를 다중화하는 기능, 전기신호를 광신호로 변환하는 기능, 역과정을 수행하는 기능 등을 탑재하고 있다.

특히 이 FLC는 ITU-T(국제전기통신연합통신부문)의 표준권고안을 토대로 일반전화회선을 비롯해 사설교환회선, 광대역 종합정보통신망(B-ISDN)등 다양한 종류의 전송장비들과 상호접속 및 연동이 가능하게 특징이다.

또한 이 장비는 기존전화망 설치방식에 비해 비용이 저렴하고 전송의 신뢰성과 전송로의 복구성이 높아 PC통신, 팩스정보, 동화상정보 등 각종 데이터 서비스이 제공이 가능하다.

수정진동자 생산 확대

싸니전기공업

싸니전기(대표 광영의)가 이달 말부터 국내외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통신기기용 수정진동자의 생산을 대폭 확대한다.

이 회사는 서울 구로동 공장에 통신기기용 수정진동자인 「UM시리즈」의 설비 증설을 착수 3개월만에 완료하고 1월말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4억 5,000만원이 투입된 이번 설비확대로 「UM시리즈」는 기존 월12만개에서 20만개로 늘어나게 됐다.

UM시리즈는 페이지 무선전화기 등 통신기기에 들어가는 경박단소형의 고부가가치제품이다.

컴퓨터 및 통신기기시장이 세계적으로 급격한 성장세를 보임에 따라 공급이 달리고 있는 수정진동자의 수요에 대비, 생산을 늘리게 됐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싸니전기는 지난 94년 필리핀에 현지 생산법인을 설립, 가전 및 컴퓨터용 수정진동자를 생산해 왔으며 지난해 9월 ISO9001인증을 획득했다.

리드 프레임 제조기술

대만에 이전

아남반도체기술

(주)아남반도체기술(대표: 김

무)이 반도체 완성품의 주요 원자재인 리드프레임 제조장비 및 공정기술을 대만에 수출하게 된다.

이는 대만의 친풍(慶豐)그룹이 아남반도체기술의 리드프레임 제조장비 및 공정을 이용하여 自國內 최초로 리드프레임 시장에 진출하기로 한 결정에 따른 것이다.

최근 대만은 기존의 IC설계 편중의 반도체 산업구조에서 점차 벗어나, ASIC과 메모리 제조분야의 균형적인 발전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따라 리드프레임 등 주변산업의 성장 중요성이 활발히 요구되고 있다.

아남이 대만에 수출하게 되는 기술은 에치드 리드프레임 제조장비 및 관련설비로서, 이는 전 생산공정의 자동화와 더불어 리드프레임 제조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던 공정간 자재이동을 제거, 100% 인라인(In line)화된 릴투릴(Reel To Reel)시스템으로, 리드프레임 제조에 있어 일대 혁신을 꾀한 첨단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그동안 반도체 관련장비 및 기술의 대부분을 미, 일 등에 전적으로 의존해오던 것과는 달리, 순수 국내기술을 통해 고부가가치의 제조기술 및 장비를 수출한다는 점에서 더욱 의의가 크다.

LCD용 도광판 국산화

우영

커넥터 전문생산업체인 우영이 노트북 PC용 액정표시장치(LCD)의 주요부품인 백라이트용 도광판의 국산화에 성공했다.

이회사 부설 생산기술연구소는 「1억원의 연구비를 투입, 1년간 연구 끝에 10.4인치 노트북PC 백라이트용 도광판의 국산화개발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백라이트는 스스로 발광하지 못하는 LCD가 정보를 표현할수 있도록 빛을 공급하는 장치이며 도광판은 이 빛을 균일하게 산란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핵심부품이다.

우영은 이번에 값은 싸지만 휘도가 다소 떨어지는 평판형 도광판과 값이 비싼 썬기형 도광판과 동일한 1,100cd/m²의 휘도특성을 내도록하는데 성공함으로써 국내 노트북PC의 생산원가절감은 물론 이제품의 對日역수출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제품은 이제까지 국산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전량 일본에서 수입해 왔는데 올해의 경우 수입규모가 3백억원선을 웃돌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영은 이번 개발을 바탕으로 도광판의 두께를 반으로 줄이는 연구를 진행하고 초고휘도 썬기형 도광판 및 12.1인치급 도광판 국산화연구를 강화할 계획이다.

29인치 컬러TV 출시

LG전자

LG전자(대표 구자홍)는 23일 입체음향기술을 적용한 29인치 「아트비전골드」 TV(모델명 CNR 2996P)를 개발, 시판한다고 발표했다.

이 제품은 미국 SRSLAB사가 개발한 3차 원음향시스템과 다이아몬드 코팅을 한 고음전용스피커 및 저음용 슈퍼우퍼를 채용해 현장음향의 재현이 뛰어나다. SRS사의 3차원 음향 시스템은 귀의 방향에 따라 소리가 다르게 들리는 점을 이용해 전면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를 측면에서 나는 소리로 착각하도록 해주는 첨단 음향기술이다.

이 제품은 또 브라운관 유리를 검게 코팅해 빛의 투과율을 낮추고 명암을 뚜렷하게 하는 다크틴트(Dark tint) 슈퍼플랫브라운관을 채용했고 주변 조명에 따라 최적의 화질을 재현하는 3차원 광센서를 부착했다.

28인치 광폭TV 개발

LG전자

LG전자(대표 구자홍)가 4원색 슈퍼플랫브라운관과 3차원센서를 채용해 화질을 크게 개선한 28인치 고급형 광폭TV(모델명 WN-2810D)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1월 16일부터 시판에 들어간 이 제품은 명암대비를 더욱 향상시킨 다크코팅과 함께 3차원센서

를 TV에 부착해 최적의 자연색을 재현하는 기술 등을 적용, 기존제품보다 깨끗하고 선명한 화질을 제공한다. 또 중저음 더블슈퍼우퍼와 중저음 보강회로를 채용해 미니컴포넌트급에 맞먹는 음질을 즐길 수 있다.

기능상으로는TV화면을 4대3 표준화면 또는 8대9 화면으로 나눌 수 있는 기능과 좌우화면의 시청범위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기능, 화면속 화면(PIP : Picture In Picture) 기능 등 사용자가 편리하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화면 구현 기능을 갖췄다.

심자도 측정시스템

국내 첫 개발

LG전자

LG전자(대표 구자홍)가 사람의 심장 박동 때 발생하는 미세한 자기 신호(心磁圖)를 측정할 수 있는 「심자도측정시스템(心磁計)」을 국내 처음 개발했다.

LG전자는 지난 3년동안 약 15억원을 투입해 미세한 자기장까지 측정할 수 있 최첨단 센서인 고온 초전도 양자간섭소자(SQUID= Superconductiong Quantum Inderference Device)를 이용한 심자계를 자사 기술원에서 개발했다고 밝혔다.

LG전자는 지난 92년 액체질소 온도에서 작동하는 고온초전도박

박을 이용한 양자간섭소자를 국내 처음으로 개발한 바 있다.

이 심자계는 초전도 양자간섭소자 센서를 포함한 감지부를 심장 부근에 위치시켜 측정하기 때문에 여러 개의 전극을 환자의 몸에 부착, 측정하는 심전도 측정기기와 달리 환자가 편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모니터 사업 강화

태일정밀

태일정밀(대표 정강환)이 모니터 사업을 확대한다.

태일정밀은 국내외 모니터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계열사인 동호전기 진주공장의 모니터 생산규모를 현재의 월7만개에서 15만개로 확충하고 17인치이상 대형 모니터의 개발 및 생산도 본격 추진키로 했다.

태일정밀은 이를위해 최근 17인치 모니터를 개발한 데 이어 20인치제품은 올 하반기까지 개발완료, 본격적인 출하에 나설 계획이다.

또 현재 14인치 및 15인치 위주의 제품생산 라인을 17인치 및 20인치 생산라인으로 전환하고 자사 PC에 부착해 부가가치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수출에서는 미국 테크미디어사와 월 5만개씩 1년간 OEM공급 계약을 체결, 본격적인 공급에 나설 방침이다.

기술연구소 설립 필코전자

콘텐츠 및 저항기 전문생산업체인 필코전자(대표 윤철동)가 최근 신제품개발 등 연구개발 강화를 위해 기술연구소를 설립했다.

필코전자는 차세대 세트 시장을 겨냥한 신제품 개발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개발부를 기술연구소로 승격시키고 최근 본격적인 개발작업에 착수했다. 이 회사는 매출 확대를 위해서는 신제품 개발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고 연구·개발을 위해 올해 10억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필코전자는 이번 기술 연구소 설립을 계기로 최근 모 콘텐츠업체에서 락카드타입 콘텐츠 생산설비를 도입, 기계실험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 하반기중에는 기존에 생산하고 있던 X2콘텐츠와 Y2콘텐츠의 특성을 응용한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할 방침이다.

수도권 TRS 사업 참여

한국전자

종합부품업체인 한국전자(대표 박정소)가 수도권 지역 주파수공용통신(TRS) 사업권 경쟁에 참여한다.

한국전자는 이를 위해 최근 25명으로 구성된 정보통신 사업팀을 발

족시키고 사업계획서 작성 등 본격적인 사업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정보통신사업팀장에는 사장실장인 김충환전문가 선임됐다.

한국전자는 이달중으로 통신기 기재업체, TRS 수요업체 등과 컨소시엄 구성작업을 추진하는 한편 스웨덴 에릭슨사와 TRS 장비 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서울대병원 LAN 및 응급실 시스템 수주 한국 후지쯔

한국후지쯔(대표 : 이환호)는 최근 서울대병원과 15억원규모의 시스템을 수주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의 내용은 HIS(Hospital Information System), PACS(의료영상정보시스템), OCS(Order Communication System : 처방전달시스템) 등의 운용을 위한 LAN을 비롯한 유닉스 서버시스템이 포함되어 있으며, 응급실 전용시스템으로 메인프레임 M730/20시스템을 공급하게 된다.

저가형 LBP 시판

현대전자산업

현대전자(대표 정몽헌)는 한글 윈도우95 환경에 적합한 40만원대 저가형 레이저프린터 (모델명 X

레이저 WIN)를 시판한다.

이 제품은 분당 6장(6CPM)의 인쇄속도와 300 dpi의 고해상도를 제공하며 별도의 메모리 확장 없이도 대용량 데이터를 완벽하게 인쇄할 수 있어 대용량 데이터를 100% 인쇄하지 못하는 기존 저가형 레이저 프린터의 단점을 해결했다.

또 컴퓨터와 프린터의 양방향 통신을 이용한 리양방향 통신을 이용한 리모트 프로그램을 제공해 프린팅 상태가 모니터를 통해 표시되며 출력방향, 용지장수, 용지 크기 등의 환경설정과 인쇄작동 등도 컴퓨터 화면상에서 원격조정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씨티맨」 후속 제품

1월말 시판

현대전자산업

현대전자(대표 정몽헌)가 자사의 휴대전화기인 「씨티맨」의 후속 제품을 이달말부터 시판한다고 밝혔다.

이 제품(모델명 HHP-9100)은 오디오전용 칩과 잡음제거용 필터, 데이터전용 칩, 이중안테나 등을 사용해 기존제품에 비해 통화감도 및 수신율을 높였으며 통화 대기시간도 28시간으로 늘렸다는 점이 특징이다. 기능면에서도 31회까지 재발신이 가능한 오토 리트라이 기능, 파워 버튼을 제외한

국·내·업·계·소·식

모든 버튼으로 수신이 가능한 애니키기능 등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다.

또 사용의 편리성을 위해 크기(110×53×20mm)와 부피(115cc)도 줄였다.

이 제품의 소비자가격은 69만원이다.

관련기관 및 회원사 인사 동정

▶ 전자부품 종합기술 연구소 (사업본부장) 이홍부 사업본부 정보통신사업팀장 홍태의 " 전자기술사업팀장 " 임재욱 (행정지원실장) 안석현 " 총무과장 박원석 " 시설과장 박경철 " 자재과장 김재일 " 회계과장 안석현 (부품연구 본부장) 윤대원 부품연구 1실장 윤대원 부품연구 2실장 박종철 부품연구 3실장 박현식 부품연구 4실장 임태빈 (시스템 연구 본부장) 김종태 시스템연구 1실장 김종태 시스템연구 2실장 조위덕 (중소기업 지원 사업 단장) 소장 겸직 신뢰성 센터장 차종범	ASIC 센터장 중소기업지원실장 I-Tech센터장 (정책 기획실장) (ATEL 단말기 사업단장) 김한식 (마이크로 머신 센터장) 신상모 (HDTV 센터장) 노기홍	이철동 김종완 이광표 변병문 김한식 신상모 노기홍	전무 전무 이사 이사대우 " " " "	정용근 이홍순 김홍배 이윤식 김철순 목현상 한기주
	▶ 대덕전자 대표이사	전무 김성기		▶ 지원산업 대표이사 정인현
	▶ 대덕산업 대표이사	전무 유영훈 전무 권오식 상무 남상협		▶ 콤플렉스시스템 상무 이광원 이사 김경년 이사 권혁사 이사 송준섭 부장 김육현 부장 정항길
	▶ 삼보컴퓨터	전무 서진구		▶ 한국화낙 대표이사 김동기 ▶ 한국컴퓨터 대표이사 사장 박명식

▶ 두산전자 사무실 이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70-2
Tel : 0342) 780-7000